고1 한국사 보충 학습지 03

1920년대 문화 통치와 경제 지배

1920년대, 통치의 겉모습을 바꾸고 경제 지배를 확대하다

v0.6

세 가지 큰 흐름

PART A ① 문화 통치의 변화

문관 총독 임명 가능 | 보통 경찰제 | 태형 폐지 | 언론 일부 허용 | 교육 지방 제도 개정

PART B ② 문화 통치의 실상

문관 총독 부재 | 경찰 확대 | 검열 | 교육 차별 | 제한적 지방 참여 | 법률 통제 | 협력 세력 포섭

PART C ③ 1920년대 경제 지배

일본 자본 | 상품 진출 확대 | 산미 증식 계획 | 쌀 반출 증가 | 농민 부담

말뜻 먼저 **표방** = 겉으로 내세움 **반출** = 밖으로 실어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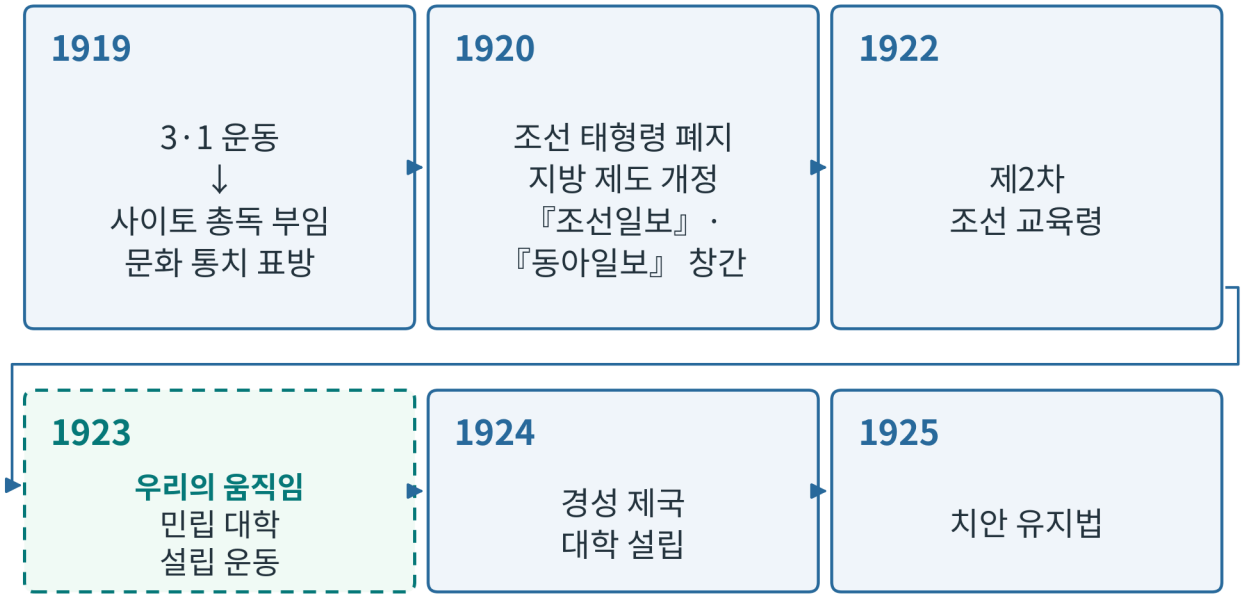
기호: `·`는 분류, `→`는 원인·과정, 나란한 칸과 `+`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함을 뜻합니다.

© 대치동 재우쌤 | 010-9524-4849 | https://leessaem.com/ | https://blog.naver.com/leessaem84
본 자료는 직접 제작한 학습 자료입니다. 개인 학습을 위한 열람·인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재배포·수정 후 재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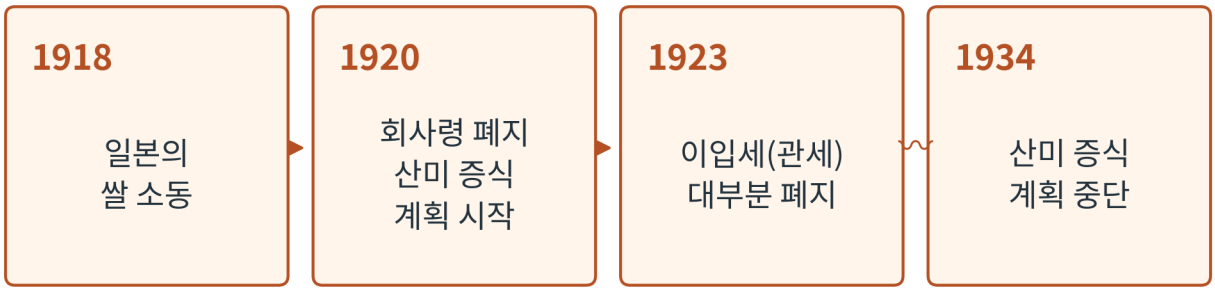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연표

통치는 위에서, 경제는 아래에서 흐름을 읽습니다.

통치 · PART A·B



경제 · PART C



〰 : 1934년 앞의 긴 연도 간격을 줄인 표시

점선 상자 = 일제의 조치가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

위 = 통치(PART A·B) / 아래 = 경제(PART C). 1934년 앞의 끊김 표시는 긴 연도 간격을 줄였다는 뜻입니다.

출처: 대치동 재우쌤 제작

PART A

3·1 운동 뒤 일제는 왜 '문화 통치'를 내세웠을까?

1910년대와 1920년대 비교

구분	1910년대 무단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총독	현역 육·해군 대장 임명	문관 임명 가능 / 실제 문관 총독 없음
경찰	헌병 경찰제	보통 경찰제 / 경찰 조직 확대
형벌·겉모습	조선 태형령 / 관리·교원의 제복·칼	태형령 폐지(1920) / 제복·칼 폐지
언론	조선인의 언론·출판 활동 강하게 통제	신문·잡지 일부 허용 / 검열 지속
교육	제1차 조선 교육령 / 보통학교 4년	제2차 조선 교육령(1922) / 원칙 6년, 차별 지속
경제 정책	토지 조사 사업·회사령	회사령 폐지·이입세 대부분 폐지·산미 증식 계획

Q1 3·1 운동이 끝난 뒤 일제는 왜 통치 방식을 바꾸려고 했을까?

한 줄 답

3·1 운동의 대규모 저항과 국제적 비판으로 무단 통치의 한계가 드러나자, 일제는 식민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 통치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군경	군대와 경찰
유화적	부드럽게 달래는 방식의
유화 정책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부드러운 방식을 내세우는 정책
3·1 운동	1919년 국내외에서 일어난 대규모 독립 만세 운동
무단 통치	일제가 군대·헌병 경찰의 강압을 앞세운 1910년대 통치 방식
조선 총독	일본이 임명해 식민지 조선을 다스리게 한 최고 책임자
사이토 마코토	1919년 새 총독으로 부임해 문화 통치를 내세운 일본 해군 대장 출신 인물
문화 통치	제도 일부를 바꾸고 회유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이어 가려 한 통치 방식
일변도	한 가지 방향이나 방식에만 치우침

■ 통치 방법을 바꾼 배경

3·1 운동의 대규모 저항 + 강경 탄압에 대한 국제적 비판

▼ 함께 작용

기존 무단 통치 방식의 한계가 드러남

▼

일제가 통치 방법을 조정

▼

‘문화 통치’ 표방



사이토 마코토 · 1919년 부임한 조선 총독(해군 대장)

출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Portraits of Modern Japanese Historical Figures』

설명

대규모 저항

1919년 3·1 운동은 전국과 국외로 퍼졌고 여러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일제는 군경을 동원해 강하게 진압했지만, 이 과정은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인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 비판

또 3·1 운동 탄압 소식이 국외에도 알려지면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제 입장에서는 1910년대처럼 군대와 헌병 경찰의 강압을 앞세우는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지배를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이유가 커졌습니다.

통치 방법 조정

그래서 일제는 식민 지배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배 방법을 더 유화적으로 보이게 바꾸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1919년 새 총독으로 부임한 **일본 해군 대장 출신 사이토 마코토**는 이른바 **'문화 정치' 또는 '문화 통치'**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문화 통치는 **강압 일변도의 겉모습을 일부 바꾸고 제한적인 제도 변화를 내세우면서 식민 지배를 이어 가려 한 통치 방식**을 뜻합니다.

이건 이해만·암기 X

사이토의 생애 전체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1919년 새 총독·문화 통치 표방만 연결합니다.

확인 문제

☐ **Q1-1** OX

3·1 운동 뒤 일제는 한국의 독립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화 통치를 실시하였다. ⭕ ❌

☐ **Q1-2** 2지선다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꾼 이유에 더 가까운 것은?

① 기존의 강압적 통치만으로 식민 지배를 안정적으로 이어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조선 통치권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 위 [통치 방법을 바꾼 배경]

Q2 ‘문화 통치’라는 이름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한 줄 답

문화 통치는 식민 지배를 유지하며 일부 제도를 바꾸고 회유를 내세운 방식이며,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릅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즉결 처분	재판 없이 헌병 경찰이 바로 벌을 주는 것
회유	상대를 달래거나 이익을 제공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민족 분열 통치	협력 세력을 길러 민족의 결집을 약화하려 한 통치 방식 / 자세한 목적은 Q12
주권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권한

■ 이름과 성격

이름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	실제 성격
문화·예술을 위한 정책 / 식민 지배 종료	**제한적 제도 변화 + 회유 → 식민 지배 유지**

설명

‘문화’라는 이름

여기서 ‘문화’는 오늘날의 공연·예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무력과 강압을 앞세운 통치보다 유화적인 모습을 내세웠다는 뜻입니다.

1910년대와 달라진 외형

1910년대의 **무단 통치**는 헌병 경찰, 즉결 처분, 태형, 제복과 칼 등 강압적인 모습을 전면에 드러냈습니다. 3·1 운동 뒤 일제는 이런 방식을 일부 바꾸고 조선인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명칭의 뜻 이때 흔히 쓰는 이름이 **문화 통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민 지배의 겉모습을 덜 강압적으로 보이게 하고, 제한적인 제도 변화와 회유를 함께 사용한 통치 방식**입니다.

유지된 식민 지배 하지만 '문화 통치'라는 명칭이 곧 **조선인의 주권·민주주의·완전한 자유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민 지배라는 기본 관계는 그대로였습니다.

확인 문제

☐ **Q2-1** OX

문화 통치는 식민 지배를 유지하면서 통치 방법을 일부 유화적으로 바꾼 것이었다. (O) (X)

☐ **Q2-2** 빈칸

문화 통치는 식민 지배 자체를 _____한 것이 아니라, 통치 _____을 일부 바꾼 것이었다.

↩ 위 [이름과 성격]

Q3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다'는 변화는 실제로 총독이 민간인으로 바뀌었다는 뜻일까?

한 줄 답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바뀌었지만, 실제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임용	관리로 뽑아 씀
관제	관청의 조직과 관리 임명에 관한 규칙
문관	군인이 아닌 관리
무관	군인인 관리

■ 규정과 실제 임명

구분	내용
규정 변화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
실제	문관 총독은 실제로 임명되지 않음

설명

1910년대 규정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을 일본 육군·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919년 관제 개정 3·1 운동 뒤인 1919년 관제를 고쳐 이런 군인 중심의 임용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임명 하지만 **가능해졌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조선 총독으로 문관이 실제 임명된 적은 없었습니다. 총독은 계속 군 출신 인물이 맡았습니다.

이건 이해만·암기 X
역대 조선 총독의 이름 전체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확인 문제

☐ **Q3-1** OX

문화 통치가 시작된 뒤 조선 총독은 모두 문관으로 교체되었다. ⓞ ⓧ

☐ **Q3-2** 2지선다

문관 총독 제도 변화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조선인이 선거로 총독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② 문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바뀌었지만 실제 문관 총독은 나오지 않았다.

↩ 위 [규정과 실제 임명]

Q4 헌병 경찰제를 없애고 '보통 경찰제'로 바꾼 것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

짝 Q7에서 실제 모습 확인

한 줄 답

헌병 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고 관리·교원의 제복·칼 및 조선 태형령이 폐지되었지만, 이것만으로 경찰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헌병 경찰제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았던 제도
보통 경찰제	헌병 대신 일반 경찰 조직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바꾼 제도
조선 태형령	조선인에게 매를 때리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일제가 만든 법령

제도의 변화와 판단

바뀐 제도	판단할 때 구별할 점
헌병 경찰제 → 보통 경찰제	경찰 규모·실제 통제는 별도 판단 → Q7
관리·교원의 제복·칼 폐지 / 조선 태형령 폐지(1920)	노골적인 무력 통치의 외형을 일부 줄임



1910년대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재현 그림) · 01편에서 본 그림. 1920년대에는 폐지

출처: 대치동 재우쌤 제작

설명

경찰 제도 전환 01편에서 배운 1910년대의 헌병 경찰제는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는 강압적인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3·1 운동 뒤 일제는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습니다.

제복·칼과 태형의 폐지 또 관리와 공립학교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제도를 없앴고,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던 **조선 태형령은 1920년 4월에 폐지**했습니다.

외형과 실제의 구별 이 변화만 보면 1910년대의 노골적인 무력 통치 모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직의 규모와 실제 통제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문제

☐ **Q4-1** 연결

1910년대 — (헌병 경찰제 / 보통 경찰제)

3·1 운동 이후 — (헌병 경찰제 / 보통 경찰제)

☐ **Q4-2** OX

3·1 운동 뒤 헌병 경찰제가 폐지되고 보통 경찰제로 바뀌었다. ⓞ ⓧ

↩ 위 [제도의 변화와 판단]

Q5 신문과 잡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무엇이 달라진 걸까?

짝 Q8에서 실제 모습 확인

한 줄 답

조선인 신문·잡지의 발행이 일부 허용되어 표현 공간은 넓어졌지만, 검열은 계속되었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을 다스린 일제의 최고 통치 기관
『조선일보』·『동아일보』	1920년 창간된 조선인 발행 신문
『개벽』	1920년 창간되어 사회 문제와 민족의 현실을 다룬 잡지
검열	권력이 글이나 그림의 내용을 검사하여 발표를 제한하는 것

언론의 겉과 실제

겉으로 내세운 변화	실제
조선인 신문·잡지 발행 일부 허용	검열 지속 → 자세한 내용은 Q8



1920년 『개벽』 창간호 표지. 허용된 발행 공간과 Q8의 검열 자료를 함께 봅니다.

출처: [개벽 / 창간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설명

발행 공간의 변화

1910년대에는 조선인이 정치·시사 문제를 자유롭게 다루는 신문을 발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3·1 운동 뒤 일제는 제한적이지만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를 허가했습니다.

1920년 창간

1920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창간되었고, 『개벽』과 같은 잡지도 발행되었습니다. 이런 매체는 사회 문제와 민족의 현실을 알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연결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통제

그러나 "신문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발행은 일부 허용되었지만 검열은 계속되었습니다.** 자세한 통제 방식은 → Q8.

확인 문제

☐ **Q5-1** OX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 허용은 조선에서 언론 검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O X

☐ **Q5-2** 2지선다

1920년대 언론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더 정확한 것은?

① 조선인 신문·잡지의 발행 공간은 넓어졌지만 통제도 계속되었다.

② 조선 총독부가 모든 신문을 폐지하여 조선인 신문은 하나도 발행되지 않았다.

↩ 위 [언론의 겉과 실제]

Q6 학교와 지방 제도가 조금 바뀌었다면 조선인의 권리가 보장된 것일까?

짝 Q9·Q10에서 실제 모습 확인

한 줄 답

학교와 지방 참여의 공간은 일부 넓어졌지만, 교육 평등과 민주적 자치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말뜻 먼저

교육

용어	쉬운 뜻
제2차 조선 교육령	1922년 일제가 보통학교 수업 연한 등 교육 제도를 고친 법령
보통학교	당시 조선인 어린이가 다닌 초등 교육 기관
수업 연한	학교를 다니도록 정한 햇수
학제	학교의 종류·단계·교육 연한을 정한 제도
취학	학교에 들어가 다니는 것

지방

용어	쉬운 뜻
부	당시 도시 지역에 둔 행정 구역(오늘날의 시와 비슷함)
면	군 아래 행정 구역. 농촌이 많았지만 도시 성격의 면도 있었음
도 평의회·부·면 협의회	지방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둔 자문 기구
자문	결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함.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은 아님

■ 교육·지방 제도의 겉과 실제

겉으로 내세운 변화	실제
보통학교 6년 원칙·학교 증가	**교육 차별 지속 → Q9**
도 평의회·부·면 협의회 설치	**자문 기구·참여 제한 / 도 평의회 주민 직접 선거 아님 → Q10**

설명

교육 제도 변화

1922년 일제는 **제2차 조선 교육령**을 시행했습니다. 이 교육령은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원칙적으로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등 학제를 조정했습니다. 1920년대 전체로 보면 공립 보통학교 수와 취학자 수도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지방 제도 변화

또 1920년 지방 제도를 고쳐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 같은 자문 기구를 두었습니다. 다만 참여는 제한되었고, **도 평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선거·임명의 구체적인 차이는 → Q10.

변화와 권리의 구별 이런 변화는 1910년대보다 교육과 지방 행정 참여의 **형식적 공간이 일부 넓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인에게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나 민주적인 지방 자치를 완전히 보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문제

☐ **Q6-1** OX

도 평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의원을 뽑아 구성한 지방 의회였다. ⭕ ❌

☐ **Q6-2** 2지선다

문화 통치 시기의 교육·지방 제도 변화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더 적절한 것은?

① 제도 이름에 '교육'이나 '협의회'가 있으면 곧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②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과 실제 권한·참여 범위를 함께 본다.

↩ 위 [교육·지방 제도의 겉과 실제]

PART A 마지막 회상

달라져 보인 제도

A. 큰 흐름 복원

☐ **A회상-A1** 빈칸

3·1 운동과 국제적 비판 → _____ 통치 방식의 한계 → 일제가 '문화 통치'라는 _____적 방식을 내세움

☐ **A회상-A2** 빈칸

문관 총독 임명 _____ / 헌병 경찰제 폐지 → _____ 경찰제

☐ **A회상-A3** 빈칸

1920년 『_____일보』·『_____일보』 창간 등 조선인 신문·잡지 발행 일부 허용

☐ **A회상-A4** 문장 완성

학교 수가 늘어도 교육 차별은 (계속되었다 / 모두 사라졌다). 지방 기구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의회 /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였으므로 평등과 자치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 Q1~Q6의 비교표·도식

PART B

‘문화 통치’의 실제 모습은 왜 이름과 달랐을까?

겉으로 내세운 변화와 실제

분야	내세운 변화 · PART A	실제 · PART B	어디서 배우나
총독	문관 임명 가능	문관 총독 0명	Q3 → Q3
경찰	보통 경찰제	경찰 관서·인원 증가	Q4 → Q7
언론	『조선일보』·『동아일보』 창간	검열·기사 삭제·압수·정간	Q5 → Q8
교육	보통학교 6년 원칙·학교 증가	교육 차별 지속·고등 교육 제한	Q6 → Q9
지방	도 평의회·부·면 협의회	자문 기구·제한 선거 / 나머지 면 임명	Q6 → Q10
새 통제	유화 정책 표방	치안 유지법(1925)·협력 세력 포섭	Q2 → Q11·Q12

Q7 헌병 경찰제가 폐지됐는데 왜 경찰 통제가 약해졌다고만 할 수 없을까?

짝 Q4에서 본 변화

한 줄 답

보통 경찰제 아래 경찰 관서와 인원이 늘어 일상적인 감시·통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경찰 관서	경찰서·주재소 등 경찰 업무를 맡는 기관
주재소	경찰관이 지역에 머물며 업무를 보는 작은 관서
고등 경찰	사상과 정치 활동을 감시·단속하던 경찰

■ 제도 이름과 경찰 규모

제도의 이름	조직의 실제
헌병 경찰제 폐지 → 보통 경찰제	관서·인원 확대 → 감시·통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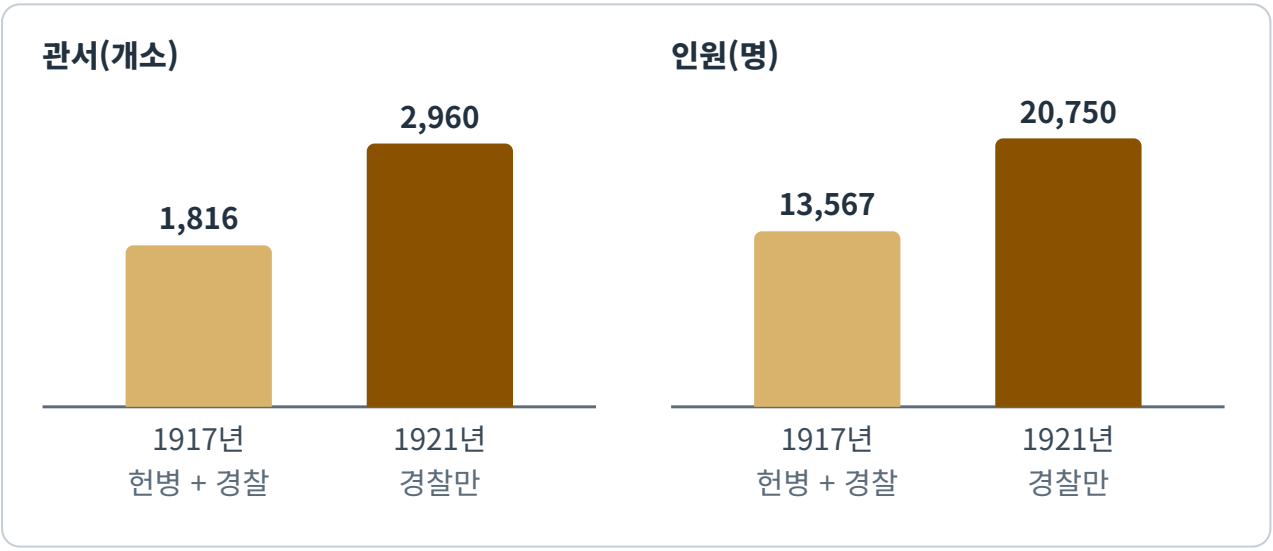
3·1 운동 전후의 치안 기구

비교 시점	관서(개소)	인원(명)	집계 범위
1917년 · 3·1 운동 전	**1,816**	**13,567**	헌병 기관·경찰 관서 / 헌병·헌병 보조원·경찰 합계
1921년 · 보통 경찰제 시기	**2,960**	**20,750**	경찰 관서·경찰관 / 헌병 별도 합산 없음

1917년 = 헌병 + 경찰을 합한 수 / 1921년 = 경찰만 센 수

볼 것 1917년은 헌병까지 포함했는데도, 1921년 경찰 관서·인원이 더 많습니다. 관서는 약 **1.6배**, 인원은 약 **1.5배**가 되었습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5권



설명

경찰 조직 확대 헌병 경찰제가 폐지되면서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맡던 모습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보통 경찰제를 운영하면서 경찰 관서와 경찰 인원을 늘렸습니다.

감시·통제 지속 즉 **군사적 외형은 줄였지만 경찰 조직을 통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식민 통치가 '덜 보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통제 능력까지 자동으로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망의 확대 일제는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목표로 경찰 조직을 확대하고, **고등 경찰**을 통해 사상과 정치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확인 문제

☐ **Q7-1** OX

헌병 경찰제가 폐지된 뒤에도 경찰 관서와 인원이 늘어 식민 통제는 계속되었다. (O) (X)

☐ **Q7-2** 2지선다

보통 경찰제의 실상을 판단할 때 더 중요한 근거는?

① 이름에 '보통'이 들어간다는 사실

② 실제 경찰 조직의 규모와 감시·통제 기능

↩ 위 [제도 이름과 경찰 규모]

Q8 신문 발행을 허용했는데 왜 '언론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까?

짝 Q5에서 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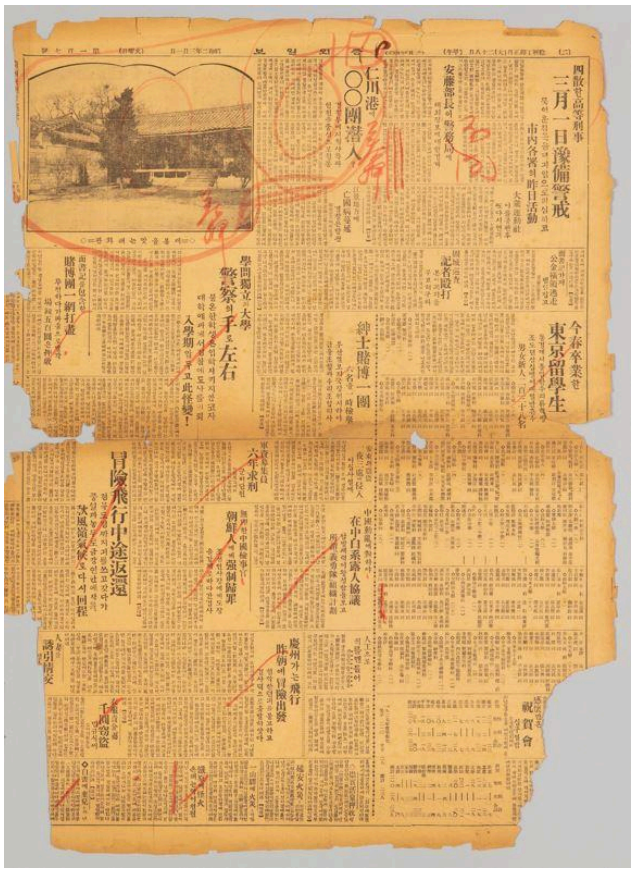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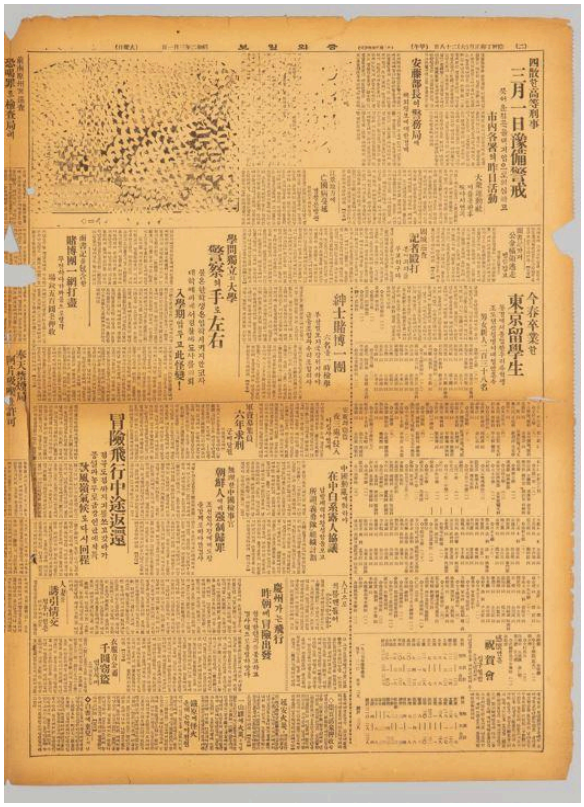
> **한 줄 답**
> 조선인 신문 발행을 일부 허용하면서도 검열과 기사 삭제·압수·정간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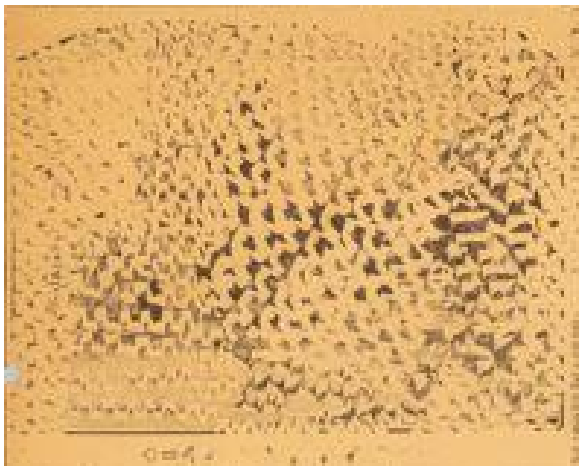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민족의식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생각과 자부심
태화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독립 선언식을 한 곳
『중외일보』	1926년 창간된 조선인 발행 신문 / 아래 자료는 1927년 3월 1일자
기사 삭제	검열로 문제 삼은 내용을 지면에서 지우게 하는 처분
압수	발행한 신문·잡지 등을 강제로 거두어 가는 처분
정간	일정 기간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멈추게 하는 처분

■ 허용과 검열

겉으로 내세운 변화	실제
『조선일보』·『동아일보』 등 발행 허용	검열 → 기사 삭제·압수·정간

검열본 전체 지면	삭제본 전체 지면
	

검열본 확대	삭제본 확대
	

1927년 3월 1일 『중외일보』. 신문이 3월 1일에 맞춰 태화관 사진을 실어 3·1 운동의 의미를 되살리려 하자, 총독부가 그 뜻을 알아보고 지우게 했습니다.

붉은 글씨·선 = 검열관의 표시. 삭제본에서는 태화관 사진이 있던 자리를 비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구입015050·015051), 「일제는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

설명

표현 공간 확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조선인 신문이 발행되면서 이전보다 공개적으로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공간은 넓어졌습니다.

총독부의 통제 하지만 총독부는 신문과 잡지의 내용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비판하거나 민족의식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기사에는 **삭제·압수·정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허용과 통제의 공존 따라서 1920년대 언론 상황은 **일부 발행 허용**과 **강한 검열·통제**가 **동시에 존재**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확인 문제

☐ **Q8-1** OX

1920년대에는 조선인 신문의 발행 허용과 총독부의 언론 검열이 동시에 존재했다. ⭕ ❌

☐ **Q8-2** 2지선다

신문 발행 허용의 의미를 더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일제가 조선인의 완전한 언론 주권을 인정했다.

② 이전보다 표현 공간은 넓어졌지만 식민 권력의 통제 아래 있었다.

↩ 위 [허용과 검열]

Q9 학교가 늘었다면 교육 차별도 사라졌을까?

짝 Q6에서 본 변화

한 줄 답

학교와 취학 기회가 늘어난 측면은 있지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교육 차별과 고등 교육의 제한은 계속되었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조선인이 민간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 한 운동
경성 제국 대학	일제가 1924년 경성에 세운 대학 / 조선인의 교육 평등을 뜻하지는 않음
경성	일제 강점기 서울의 이름

교육 기회와 차별

겉으로 내세운 변화	실제
보통학교 6년 원칙·학교와 취학자 증가	**교육 차별 지속·고등 교육 기회 제한**

설명

늘어난 교육 기회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은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원칙적으로 늘리는 등 학제를 조정했고, 1920년대에는 공립 보통학교 수와 취학자 수도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의 학교 진학 기회가 이전보다 넓어진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남아 있던 차별

그러나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 체계와 학교 여건에는 차이가 계속 존재했습니다. 조선인이 원하는 만큼 학교가 충분히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고등 교육 기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선인이 스스로 대학을 세우려 한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나타난 배경에도 이런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학 설립과 교육 평등

1924년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지만, 이것이 조선인의 고등 교육 기회가 평등해졌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

따라서 **학교가 늘었다 = 교육 차별이 사라졌다**라고 연결하면 곤란합니다.

원칙과 실제 운영

제2차 조선 교육령이 6년제를 원칙으로 정했다고 해서 모든 보통학교가 곧바로 6년제로 운영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배울 때 교육 기회의 한계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건 이해만·암기 X

학교별 학생 수와 모든 교육 기관의 이름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확인 문제

☐ **Q9-1** OX

보통학교 증설 정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 기회가 완전히 평등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 ❌

☐ **Q9-2** 2지선다

교육 정책을 평가할 때 함께 봐야 할 것은?

① 학교 수·취학 기회의 변화뿐 아니라 실제 교육 기회와 차별의 지속 여부

② '교육령'이라는 법령의 이름만

↩ 위 [교육 기회와 차별]

Q10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가 생긴 것은 '지방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뜻일까?

짝 Q6에서 본 변화

한 줄 답

이 기구들은 자문 기구였고 구성 방식과 선거 참여가 제한되어, 주민이 지방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적 지방 자치와 달랐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납세	세금을 냄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 모두에게 재산·성별 차별 없이 선거권을 주는 것

■ 지방 기구의 권한과 구성

기구	구성원을 정한 방법	권한
도 평의회	주민 직접 선거 ×	자문(의견만)
부 협의회	선거 ○ — 세금을 일정액 이상 낸 사람만	자문(의견만)
면 협의회·일부 면	선거 ○ — 위와 같은 자격 제한	자문(의견만)
면 협의회·나머지	임명	자문(의견만)

세 기구 모두 결정권 × →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다름

설명

권한의 한계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는 모두 지방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였습니다. 먼저 이 점을 오늘날의 지방 의회와 구별해야 합니다.

구성 방식의 차이

구성 방식도 같지 않았습니다. **도 평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협의회 선거는 **부와 일부 면에서만** 실시되었고, **나머지 면에서는 협의회원을 임명**했습니다.

선거 참여의 제한

선거가 실시된 곳에서도 **일정한 세금 납부 조건을 갖춘 소수에게만 참여가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조선인이 참여할 통로가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조선인이 보통선거로 대표를 뽑아 지방 정책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 문제

☐ **Q10-1** OX

부와 일부 면에서 실시된 협의회 선거는 세금 납부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성인 조선인이 참여한 보통선거였다.

O X

☐ **Q10-2** 2지선다

이 기구의 한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더 적절한 것은?

① 선거권이 제한되었고 실제 정책 결정 권한도 제한적이었다.

② 이름에 '회의'가 들어가므로 국회와 같은 권한을 가졌다.

↩ 위 [지방 기구의 권한과 구성]

Q11 ‘치안 유지법’은 왜 문화 통치의 실상을 보여 주는 사례일까?

한 줄 답

겉으로 일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치안 유지법(1925)을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 탄압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국체	당시 일본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가리키던 말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민간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결사	공통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
치안 유지법	국체 변경·사유 재산 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와 활동을 단속한 법
사회주의	공장·토지 같은 생산 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가져 불평등을 없애자는 사상

■ 자유의 표방과 법률 통제

겉으로 내세운 변화	실제
유화 정책·일부 자유 허용	치안 유지법(1925)으로 사상·조직 활동 단속
통치의 외형 변화	사회주의 운동·독립운동 탄압에 활용

설명

법의 제정·적용

1925년 일본은 **치안 유지법**을 제정했고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했습니다.

법의 목적과 활용

이 법의 원래 단속 대상은 **일본의 국체를 바꾸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의 결사와 활동**이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폭넓게 이용**되었습니다.

통제의 대상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여러 민족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일제는 이런 움직임을 경찰 감시뿐 아니라 법률을 이용해 억제했습니다.

강화된 법적 장치

따라서 문화 통치 시기를 “강압이 사라진 시대”라고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일부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저항 세력을 통제할 새로운 법적 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해만·암기 X

치안 유지법 조문 전체와 형량 숫자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확인 문제

☐ **Q11-1** OX

치안 유지법은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다. (O) (X)

☐ **Q11-2** 빈칸

1925년 제정된 _____ 유지법은 사상·조직 활동을 단속하며 독립운동 탄압에도 이용되었다.

↩ 위 [자유의 표방과 법률 통제]

Q12 일제는 왜 조선인 가운데 '협력 세력'을 만들려고 했을까?

한 줄 답

협력 세력을 길러 조선 사회의 결집을 약화하고 식민 지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유력자	지역에서 재산·영향력이 큰 사람
지주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농민에게 빌려 주어 대가를 받는 사람
자본가	사업에 쓰는 자본을 소유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지식인	학문·교육·언론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
포섭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임
결집	사람이나 힘이 하나로 모임

■ 통치 방식의 확대

강압·경찰 통제 + 일부 요구 수용·제도 변화 + 협력 세력 포섭

▼ 함께 사용

식민 지배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함

설명

넓은 참여의 경험 3·1 운동은 종교인·학생·상인·노동자·농민 등 여러 집단이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 넓게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협력 세력 확보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 사회 전체가 다시 한 방향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지주·자본가·지식인 등 가운데 일부에게 지원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통치 방식 확대 일제는 문화 통치를 내세워 일부 제도를 바꾸고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협력 세력을 길러 민족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폭력으로 억누르는 것과 다른 방식입니다.

주의 **지주·자본가·지식인 = 모두 친일파**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같은 사회 계층 안에서도 식민 통치에 협력한 사람과 민족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여기서는 **일제가 일부 유력 인사를 협력 세력으로 만들려 했다는 정책 방향**을 이해합니다.

확인 문제

☐ **Q12-1** OX

1920년대의 지주·자본가·지식인은 모두 일제의 협력 세력이었다. ⭕ ❌

☐ **Q12-2** 2지선다

일제가 일부 조선인 유력자를 포섭하려 한 목적에 더 가까운 것은?

① 조선인의 완전한 정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② 식민 통치에 협력할 세력을 확보하고 조선 사회의 결집을 약화하기 위해

↩ 위 [통치 방식의 확대]

PART B 마지막 회상

변화와 실상

변화와 실상 짝짓기

☐ **B회상-B1** 빈칸

헌병 경찰제 폐지 → 보통 경찰제 / 그러나 경찰 관서와 _____은 증가

☐ **B회상-B2** 빈칸

조선인 신문·잡지 발행 일부 허용 / 그러나 기사 _____·압수·정간 등 언론 통제 지속

☐ **B회상-B3** 연결·분류

다음 한계를 교육과 지방 참여에 나누어 넣으세요.

보기: ㉠ 조선인·일본인 사이의 교육 기회 차별 ㉡ 자문 기구라는 권한의 한계 ㉢ 고등 교육 기회 제한 ㉣ 부·일부 면의 선거 참여 자격 제한

교육	지방 참여
( )	( )

☐ **B회상-B4** 흐름 채우기

보기에서 골라 두 통치 수단의 목적을 완성하세요.

보기: 치안 유지법 · 포섭 · 결집 · 식민 지배 · 보통선거

법률 통제: (ⓐ) 적용 → 사회주의 운동·독립운동 탄압

협력 세력: 일부 유력자 (ⓑ) → 조선 사회의 (ⓒ) 약화

↓ 함께 작용

(ⓓ) 유지

↩ Q7~Q12의 비교표·도식

PART C

1920년대 경제 지배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1920년대 경제 지배의 두 흐름

일본 자본·상품	쌀 생산·반출
회사령 폐지·이입세 조정 → 조선 진출 확대	일본의 식량 문제 → 산미 증식 계획 → 쌀 반출 확대·농민 부담

Q13 1910년대에 만든 '회사령'을 1920년에 왜 없앴을까?

한 줄 답

회사령 폐지(1920)는 이미 진행되던 규제 완화를 마무리하여,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을 쉽게 만들었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호황	물건이 잘 팔려 경제가 활발한 상태
회사령	1910년 일제가 조선에서 회사 설립에 총독부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
허가제	조건을 갖추어도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방식
신고제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
자본	사업에 투입하는 돈·설비 등
자본력	사업에 필요한 돈·설비 등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힘

회사 설립 규제와 병렬 효과

회사 설립 **허가제 → 신고제(1920년 회사령 폐지)**

조선인 기업	일본 기업
활동 공간 일부 확대	자본력이 큰 기업의 진출 장벽 감소 → 조선 진출 확대

설명

회사령의 기능 01편에서 회사령은 조선에서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총독부가 민간 자본의 투자 방향을 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전쟁기 규제 완화 제1차 세계 대전기의 호황으로 일본 자본이 크게 성장하고 조선에 대한 투자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령의 규제는 전쟁기부터 점차 완화되었고, 1918년 개정으로 허가 규정의 실제 통제력도 크게 약해졌습니다.

1920년 폐지 일제는 1920년 **회사령을 폐지**해 회사 설립을 허가 중심에서 신고 중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회사령 폐지는 갑자기 처음 규제를 푼 사건이라기보다 **이미 진행되던 규제 완화를 마무리한 변화**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변화는 조선인 기업에게도 회사 설립 공간을 넓히는 면이 있었지만,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이 조선에 진출하기도 더욱 쉬워졌습니다.

헷갈리지 말자
회사령 폐지가 곧 **조선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 문제

☐ **Q13-1** OX

1920년 회사령 폐지는 조선 경제가 일본 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했다는 뜻이다. ⭕ ❌

☐ **Q13-2** 2지선다

회사령 폐지 뒤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이 쉬워진 이유는?

① 일본 기업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법으로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② 회사 설립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자본 이동의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 위 [회사 설립 규제와 병렬 효과]

Q14 이입세(관세)를 대부분 없앤 것은 왜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과 연결됐을까?

한 줄 답
이입세(교과서에서는 흔히 '관세'라고 씀) 대부분 폐지(1923)로 일본 상품의 세금 부담이 줄어 조선 시장 진출이 쉬워졌습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이입세(관세)	이 단원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붙던 세금. 교과서와 시험에서는 흔히 '관세'라고 씀

세금과 상품 진출

이입세(관세) 대부분 폐지

▼

일본 상품의 세금 부담 감소

▼

가격 경쟁에서 유리

▼

조선 시장 진출 확대

▼

조선인 기업 압박

설명

교과서 표현과 연결

교과서의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1923)'**는 여기서 다루는 이입세 조정과 연결됩니다. 다만 당시 조선은 식민지였으므로, 오늘날 독립 국가 사이의 관세와 똑같은 정치적 관계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1923년 세금 조정

1920년대 일제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상품 이동에 붙던 세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했고, **1923년에는 주류·직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 상품에 붙던 조선 쪽 이입세를 폐지**했습니다.

가격 경쟁과 기업 압박

상품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붙는 세금이 줄어들면 일본 상품은 조선 시장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시 자본과 생산 규모가 큰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 했던 조선인 기업에는 큰 압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연결의 강화

따라서 이입세의 대부분을 없앤 변화는 조선과 일본의 시장을 더 강하게 연결하고 **일본 상품의 조선 진출을 확대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해만·암기 X

이입세가 남았던 품목 전체와 세율은 암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폐지'로 기억합니다.

확인 문제

☐ **Q14-1** OX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이입세가 대부분 없어지면 일본 상품이 조선 시장에 들어오기 더 쉬워질 수 있다. ⭕ ❌

☐ **Q14-2** 2지선다

이입세 대부분 폐지의 영향을 더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일본과 조선 사이의 상품 이동 장벽을 낮추었다.

② 일본 상품이 조선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막았다.

↩ 위 [세금과 상품 진출]

Q15 일본은 왜 조선에서 쌀을 더 많이 생산하려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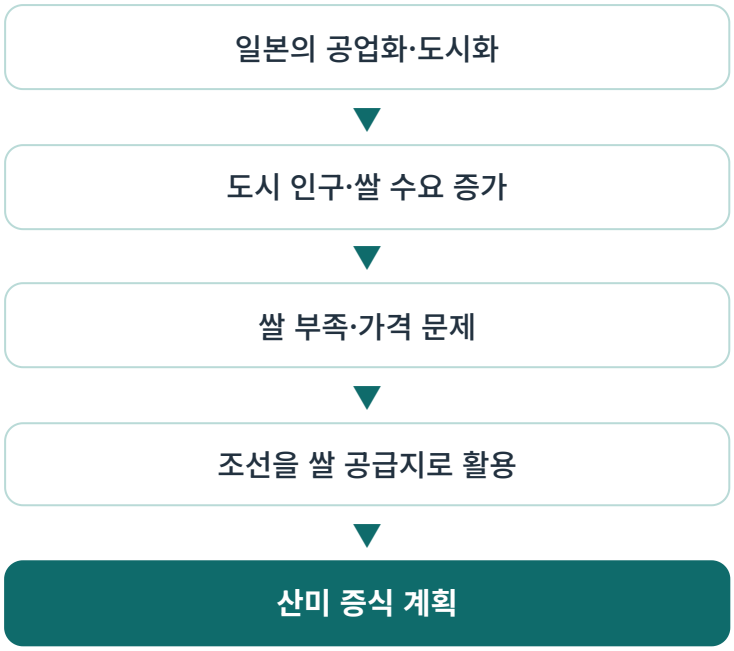
한 줄 답

일본의 공업화·도시화로 커진 쌀 부족 문제를 식민지 조선의 증산과 공급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증산	생산량을 늘림
공업화	전체 산업에서 공장·기계를 이용한 공업 생산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
도시화	인구와 일자리가 도시로 모여 도시 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
쌀 소동	1918년 일본에서 높은 쌀값에 항의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소란
산미 증식 계획	일제가 조선의 쌀 생산을 늘려 일본에 공급하려고 1920년부터 추진한 농업 정책

■ 일본의 쌀 문제와 산미 증식 계획



설명

일본의 산업·인구 변화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해 일본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시 인구와 노동자가 늘면서 쌀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쌀 부족·가격 상승

하지만 일본 국내의 쌀 생산이 늘어나는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쌀 가격이 크게 오르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1918년에는 높은 쌀값에 항의하는 **쌀 소동**이 일본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선을 공급지로 이용

일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중요한 쌀 공급지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해 조선의 쌀 생산을 늘리고 일본으로 공급하려 했습니다.

확인 문제

☐ **Q15-1** OX

산미 증식 계획의 가장 중요한 출발 목적은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을 늘려 식량 자립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O X

☐ **Q15-2** 순서

다음을 흐름에 맞게 배열하세요.

(가) 조선에서 산미 증식 계획 실시 / (나) 일본의 공업화·도시화 / (다) 일본의 쌀 수요 증가·부족 문제

↩ 위 [일본의 쌀 문제와 산미 증식 계획]

Q16 산미 증식 계획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쌀 생산을 늘리려 했을까?

한 줄 답

토지 개량으로 물 공급·논 면적 등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농사 개량으로 품종·비료·재배 방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말뜻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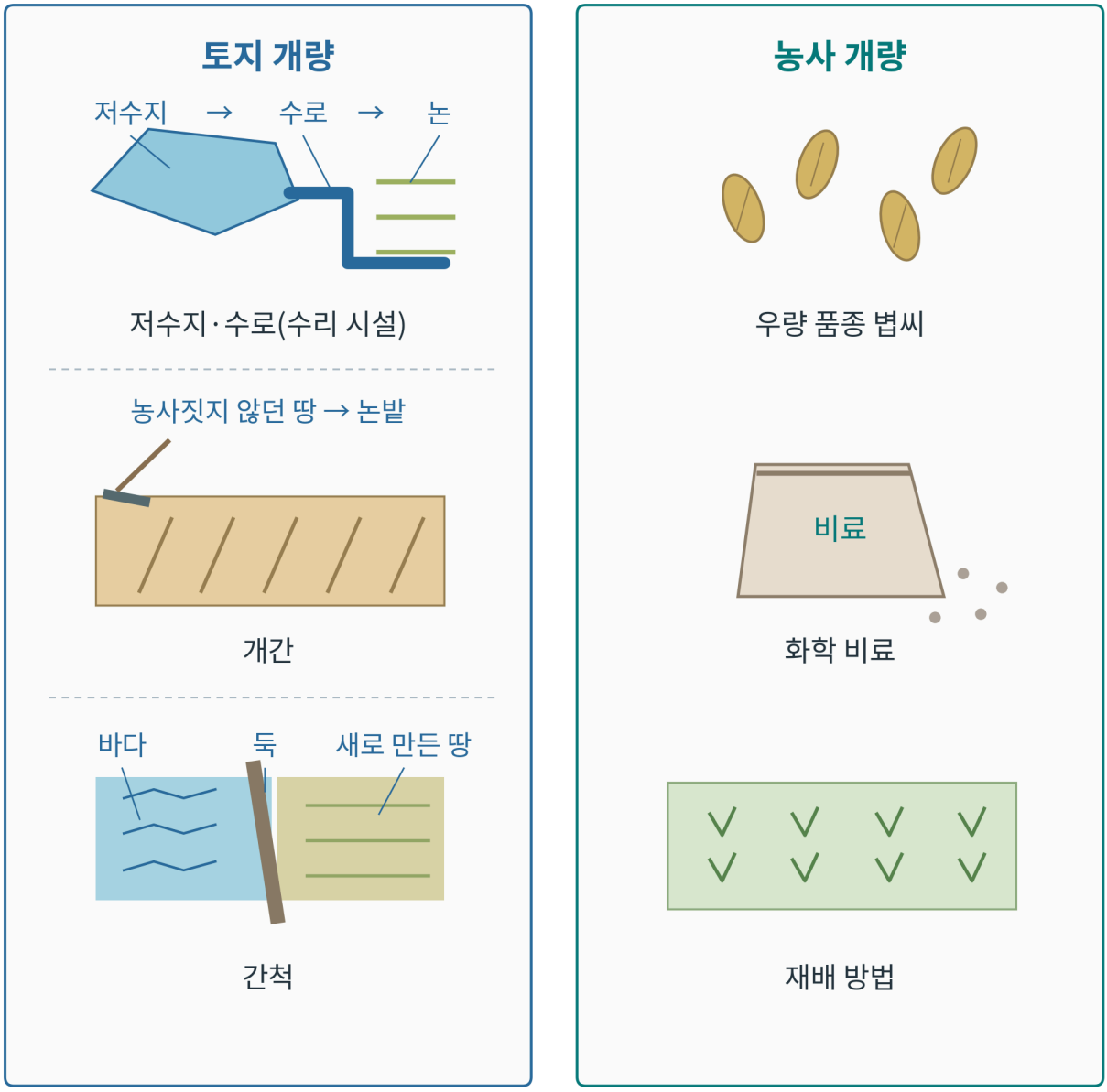
용어	쉬운 뜻
토지 개량	논의 물 공급이나 토지 상태를 고쳐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것
농사 개량	품종·비료·재배 방법을 바꾸어 생산량을 높이려는 것
수리 시설	물의 공급·조절을 위한 저수지·수로·둑 등의 시설
수리 조합	수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려고 토지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
개간	농사짓지 않던 땅을 농경지로 만드는 것
간척	바다나 갯벌 등에 둑을 쌓아 이용할 땅을 만드는 것
우량 품종	수확량·품질 등이 좋도록 고르거나 개량한 작물 종류
단위 면적당	같은 넓이의 땅을 기준으로 계산한

■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

큰 방법	대표적인 내용	목표
토지 개량	수리 시설 · 개간·간척 등	논 면적·물 공급 등 생산 조건 개선
농사 개량	우량 품종 · 화학 비료 · 재배 방법 개선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증가 추구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

쌀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바꾼 두 가지 조건



토지 개량은 땅과 물 공급 조건을, 농사 개량은 품종·비료·재배 방법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출처: 대치동 재우쌤 제작(학습용 개념 그림)

설명

증산에 필요한 조건 쌀 생산량을 늘리려면 단순히 “농민에게 더 많이 심어라”라고 명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방법 일제는 **토지 개량**을 통해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개간·간척 등을 추진했습니다. 또 **농사 개량**을 통해 우량 품종을 보급하고 화학 비료 사용과 재배 방법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확인 문제

☐ **Q16-1** OX

산미 증식 계획은 농업 생산 시설과 농사 방법을 전혀 바꾸지 않고 일본에서 생산한 쌀을 조선에 나누어 주는 정책이었다. (O) (X)

☐ **Q16-2** 연결

토지 개량 — (수리 시설·개간·간척 / 언론 검열)

농사 개량 — (품종·비료·재배 방법 / 경찰력 확대)

↩ 위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

Q17 쌀 생산량이 늘었는데 왜 조선인의 식량 사정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한 줄 답

장기 평균으로 보면 쌀 생산보다 일본 반출이 더 빠르게 늘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만주	한반도 북쪽, 오늘날 중국 동북 지방
잡곡	쌀 이외의 곡식(조·수수·콩 등)
지주제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농업 구조
쌀 생산량	조선에서 거두어들인 쌀의 전체 양
일본 반출량	조선에서 일본으로 실어 보낸 쌀의 전체 양
1인당 쌀 소비량	한 사람이 한 해에 소비한 쌀의 평균 양
석	곡식의 양을 재던 단위. 쌀 1석은 약 144kg
쌀 단작화	농업 생산이 쌀 중심으로 치우치는 현상

■ 생산·반출·소비의 구별

1917~1921년 평균 → 1927~1931년 평균

생산 ↑	반출 ↑↑	1인당 소비 ↓
14,101 → 15,798천 석	2,196 → 6,607천 석	0.68 → 0.49석
약 1.1배	약 3배	약 4분의 1 감소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신편 한국사』 49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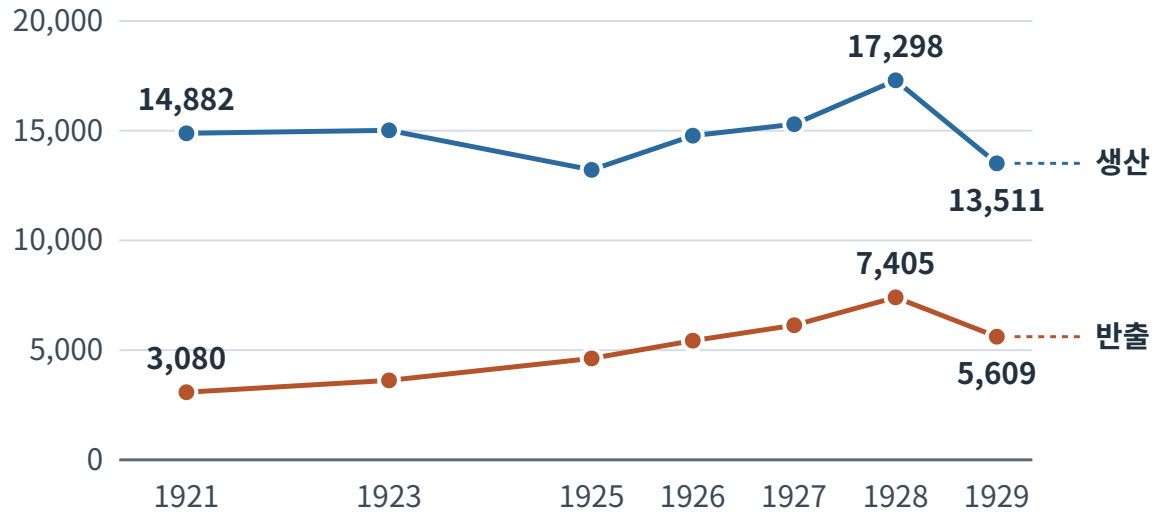
쌀의 생산·반출·소비: 연도별 자료

연도	쌀 생산량(천 석)	일본 반출량(천 석)	조선인 연간 1인당 소비량(석)
1921	**14,882**	**3,080**	0.675
1923	**15,014**	**3,624**	0.647
1925	**13,219**	**4,619**	0.519
1926	**14,773**	**5,429**	0.533
1927	**15,300**	**6,136**	0.523
1928	**17,298**	**7,405**	0.540
1929	**13,511**	**5,609**	0.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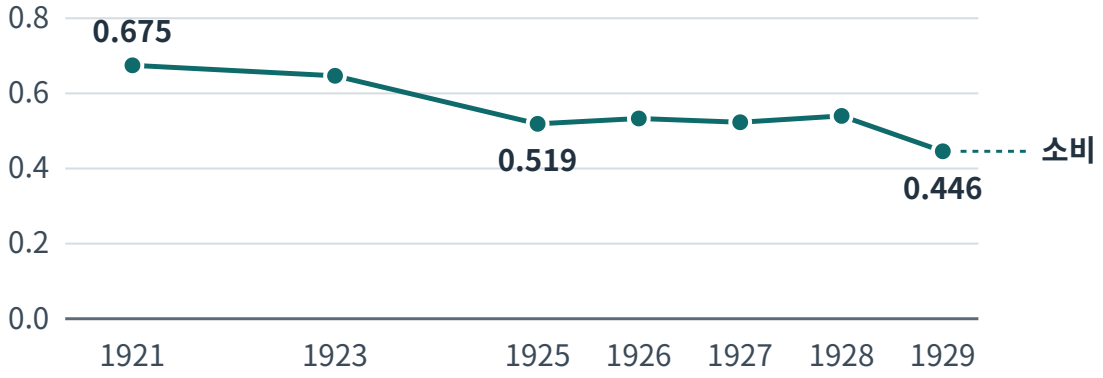
볼 것 1928→1929년에는 생산·반출이 모두 줄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평균의 흐름을 '해마다 증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조선 미곡 요람』

쌀 생산량과 일본 반출량(천 석)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석)



쌀 반출 항구와 일본으로의 이동

주요 반출 항구 → 대한 해협 → 일본 본토



● 반출 항구 → 쌀 이동 방향 ■ 일본의 소비 도시

개념적 이동 방향이며, 실제 항로·항구별 도착지·반출량은 아닙니다.

옅은 색: 호남의 평야 지대(범위는 개략 표시). 해안선: Natural Earth.

주요 쌀 반출 항구에서 대한 해협을 거쳐 일본으로 향한 쌀의 흐름. 화살표는 실제 항로와 반출량을 뜻하지 않는 약도입니다.

출처: 대치동 재우쌤 제작



1930년대 군산항에 쌓인 쌀가마니. 1920년대에 시작된 쌀 반출 구조가 이어진 모습을 보여 주는 후대 사진.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 「쌀가마니가 쌓여 있는 군산항」

설명

계획 목표와 실제 생산

산미 증식 계획이 처음부터 계획한 목표만큼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1920~1925년의 첫 계획은 목표한 수준의 토지 개량과 증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생산량이 전혀 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장기 평균으로 보면** 1920년대 조선의 쌀 생산량은 증가했습니다.

반출과 소비의 차이

더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 보내지는 쌀의 양이 생산량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메우기 위해 만주 등에서 조·수수·콩 같은 잡곡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농업의 방향과 계획의 중단

이 정책은 농업이 쌀 중심으로 치우치는 **쌀 단작화**를 강화했으며, 산미 증식 계획은 **1934년 중단**되었습니다.

주의

여기서 모든 쌀을 일본군이 논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단순화하지 않습니다. 쌀은 시장 거래·지주제·식민지 경제 구조 속에서 일본으로 대량 이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생산 확대의 이익을 얻고, 조선인의 소비와 생활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입니다.

확인 문제

☐ **Q17-1** OX

산미 증식 계획이 목표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1920년대 조선의 쌀 생산량과 일본 반출량은 장기 평균으로 보면 함께 증가하였다. ⓞ ⓧ

☐ **Q17-2** 2지선다

쌀 생산이 늘어도 조선인의 쌀 소비가 반드시 늘지 않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① 쌀이라는 작물이 조선에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② 일본으로 반출되는 쌀이 생산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기 때문에

↩ 위 [생산·반출·소비의 구별]

Q18 쌀을 더 많이 생산했는데 왜 많은 농민은 더 어려워졌을까?

한 줄 답

증산에 드는 비용과 소작료 부담이 커졌고, 이익과 부담도 계층마다 다르게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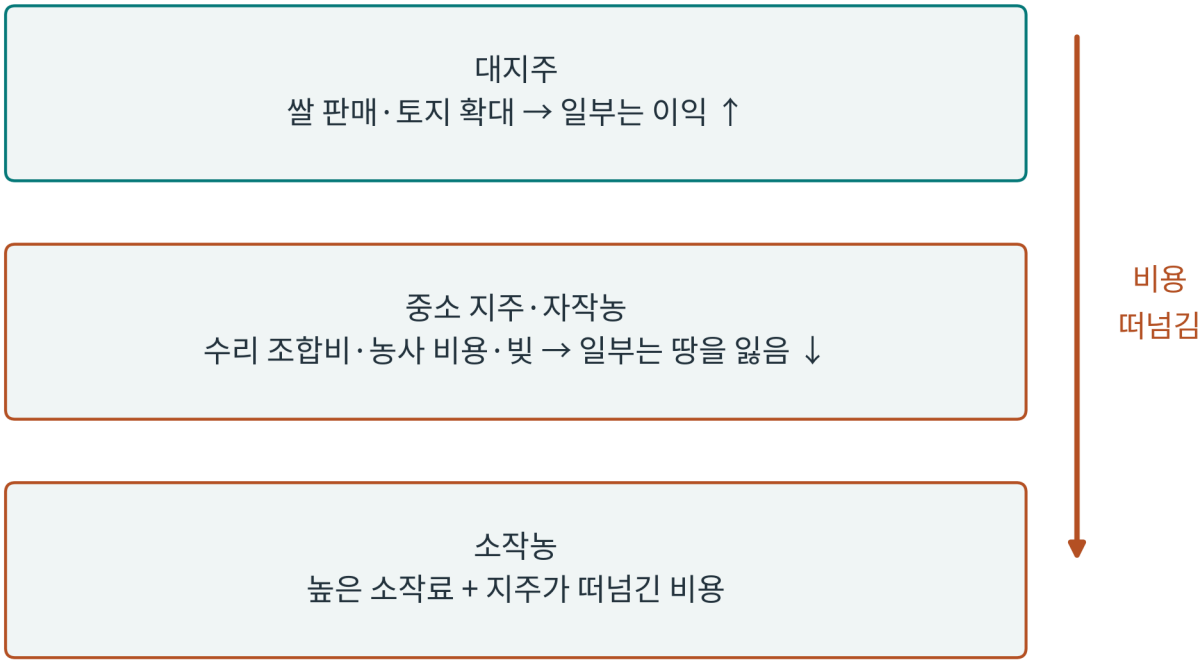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자작농	자기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
소작농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소작료를 내는 농민
소작료	땅을 빌려 농사짓는 대가로 지주에게 내는 몫이나 돈
전가	남에게 떠넘김
부채	빚

계층별로 나누어 보기

계층별 이익과 부담

같은 정책이라도 결과는 계층마다 달랐습니다.



화살표: 지주가 비용 일부를 소작농에게 넘김.

계층별 이익과 부담. 같은 계층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출처: 대치동 재우쌤 제작

집단	나타날 수 있었던 부담·결과
중소 지주·자작농	수리 조합비·농사 비용·부채 부담
소작농	높은 소작료 + 지주가 넘긴 일부 비용 부담
일부 대지주	쌀 판매·토지 소유 확대 속에서 이익 증가 가능

설명

중소 지주·자작농 수리 시설을 만들고 비료를 더 쓰려면 비용이 듭니다. 특히 수리 조합 사업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고, **중소 지주와 자작농** 가운데에는 수리 조합비와 농사 비용·부채를 견디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작농 **소작농**은 높은 소작료를 부담했고, 지주가 수리 조합비나 공사비의 일부를 소작료 인상이나 다른 부담의 형태로 소작농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리 조합비를 모든 농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직접 냈다"라고 이해하면 부정확합니다.

일부 대지주 반면 일부 대지주는 쌀 시장의 확대와 토지 소유의 확대 속에서 이익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계층별 차이 즉 같은 농업 정책이라도 **대지주 / 중소 지주·자작농 / 소작농**에게 결과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견디기 어려운 농민이 빚을 지거나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확인 문제

☐ **Q18-1** OX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이 늘었으므로 지주와 소작농을 포함한 모든 농민이 비슷한 이익을 얻었다. (O) (X)

☐ **Q18-2** 2지선다

생산량 증가와 농민 빈곤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로 더 적절한 것은?

① 수리 조합비·농사 비용·소작료·비용 전가 등 부담과 이익의 불균등한 분배가 있었기 때문에

② 농민에게는 생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기 때문에

↩ 위 [계층별로 나누어 보기]

Q19 1920년대 경제 변화를 '조선이 발전했다' 또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중 하나로만 말하면 왜 부족할까?

한 줄 답

생산·기업 활동의 실제 변화와 함께 일본 경제의 필요, 쌀 반출, 농민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뜻 먼저

용어	쉬운 뜻
이익의 분배	경제 활동에서 생긴 이익이 사람이나 집단별로 나뉘는 것

■ 경제 변화를 판단하는 틀

실제 변화	식민지 경제 구조
회사·공업 활동 증가 / 농업 생산 시설 확대 / 쌀 생산 증가	일본 자본·상품 진출 확대 / 일본으로 쌀 반출 확대 / 농민 부담·이익의 불균등

▼ 함께 판단

경제 변화의 규모뿐 아니라 목적·흐름·분배를 봄

설명

실제로 있었던 변화

1920년대 조선에서는 회사 수와 공업 활동이 늘었고, 농업 생산 시설도 확대되었습니다. 쌀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제 변화 자체를 없었던 일처럼 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목적과 방향

하지만 변화의 방향과 이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사령 폐지와 이입세 조정은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과 상품이 조선에 더 쉽게 들어오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을 중요한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조선에서 늘어난 쌀 가운데 많은 양이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계층별 비용과 이익

또 농업 생산 확대의 비용과 이익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뉘었습니다. 일부 지주는 이익을 얻었지만, 중소 지주·자작농은 생산 비용과 부채 부담을 겪을 수 있었고 소작농은 높은 소작료와 비용 전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종합 판단

따라서 1920년대 경제 변화는 **생산과 산업의 변화가 실제로 존재하면서도, 식민지 조선을 일본 경제의 필요에 더 깊게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문제

☐ **Q19-1** OX

회사 수와 쌀 생산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1920년대 경제 정책이 조선인의 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O X

☐ **Q19-2** 모두 고르기

1920년대 경제 변화를 평가할 때 생산 증가 외에 함께 볼 요소를 모두 고르세요.

① 일본 자본·상품이 이동한 방향

② 생산 증가의 이익과 비용이 계층별로 나뉜 방식

③ 회사 수가 늘면 모든 농민의 소득도 같아진다는 전제

④ 늘어난 쌀이 어느 곳으로 반출되었는지

↩ 위 [경제 변화를 판단하는 틀]

PART C 마지막 회상

돈·상품·쌀의 흐름

기업과 시장

☐ **C회상-C1** 빈칸

1920년 _____령 폐지 → 회사 설립 규제 완화 → 일본 _____의 조선 진출 확대

☐ **C회상-C2** 빈칸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붙던 _____ 대부분 폐지 → 일본 상품의 조선 시장 진출이 더 쉬워짐

쌀과 농민

☐ **C회상-C3** 빈칸

일본의 공업화·도시화 → 쌀 수요 증가·부족 문제 → 조선에서 _____ 증식 계획 실시

☐ **C회상-C4** 문장 완성

쌀 생산 증가보다 일본 반출이 더 빠르게 늘면 조선인의 쌀 소비가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반드시 늘어난다). 중소 지주·자작농의 생산 비용과 소작농의 소작료 부담이 커지면 생활은 (모두 똑같이 좋아진다 / 어려워질 수 있다).

☐ **C회상-C5** 밑줄 고치기

"회사와 생산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변화의 목적과 이익의 분배를 모두 판단할 수 있다."

→ 밑줄을 바꾸면? (판단할 수 없다 / 살펴볼 필요가 없다)

↵ Q13~Q19의 표·도식

마지막 정리

세 가지 큰 흐름

1. 전체 흐름 복원

☐ **1-1** 빈칸

3·1 운동 → 무단 통치의 한계 → ‘_____ 통치’ 표방 → 문관 총독 임명 가능·보통 경찰제·언론 발행 일부 허용 등

☐ **1-2** 빈칸

헌병 경찰제 폐지 / 그러나 경찰력 _____ · 언론 _____ · 치안 유지법 · 협력 세력 포섭 등으로 식민 통제 지속

☐ **1-3** 빈칸

회사령 폐지·이입세 대부분 폐지 → 일본 자본·상품 진출 확대 / 일본의 쌀 부족 → _____ 증식 계획 → 쌀 생산·일본 반출 증가

2. 겉과 실제 비교

☐ **2-1** 문장 완성

문화 통치 시기에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 / 불가능)해졌지만, 실제 문관 총독은 (임명되었다 / 임명되지 않았다).

☐ **2-2** 모두 고르기

문화 통치 시기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를 모두 고르세요.

① 경찰 관서와 인원이 증가했다.

② 신문의 기사 삭제·압수·정간이 계속되었다.

③ 헌병 경찰제가 보통 경찰제로 바뀌자 경찰 통제가 사라졌다.

④ 치안 유지법으로 사상·조직 활동을 단속했다.

☐ **2-3** 연결·분류

아래 사례를 교육과 지방 참여의 한계에 나누어 넣으세요.

보기: ㉠ 보통학교가 늘어도 조선인·일본인의 교육 기회 차이가 남음 ㉡ 협의회가 의견을 제시해도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는 못함 ㉢ 선거 실시 지역에서도 납세 조건을 갖춘 소수만 참여함

교육	지방 참여
( )	( )

3. 단정적인 설명 고치기

☐ **3-1** 밑줄 고치기

“헌병 경찰제가 없어진 뒤 1920년대에는 경찰 관서와 인원이 줄었다.”

→ 밑줄을 바꾸면? (모두 사라졌다 / 늘었다)

☐ **3-2** 밑줄 고치기

“회사령 폐지로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 장벽이 높아졌다.”

→ 밑줄을 바꾸면? (낮아졌다 / 그대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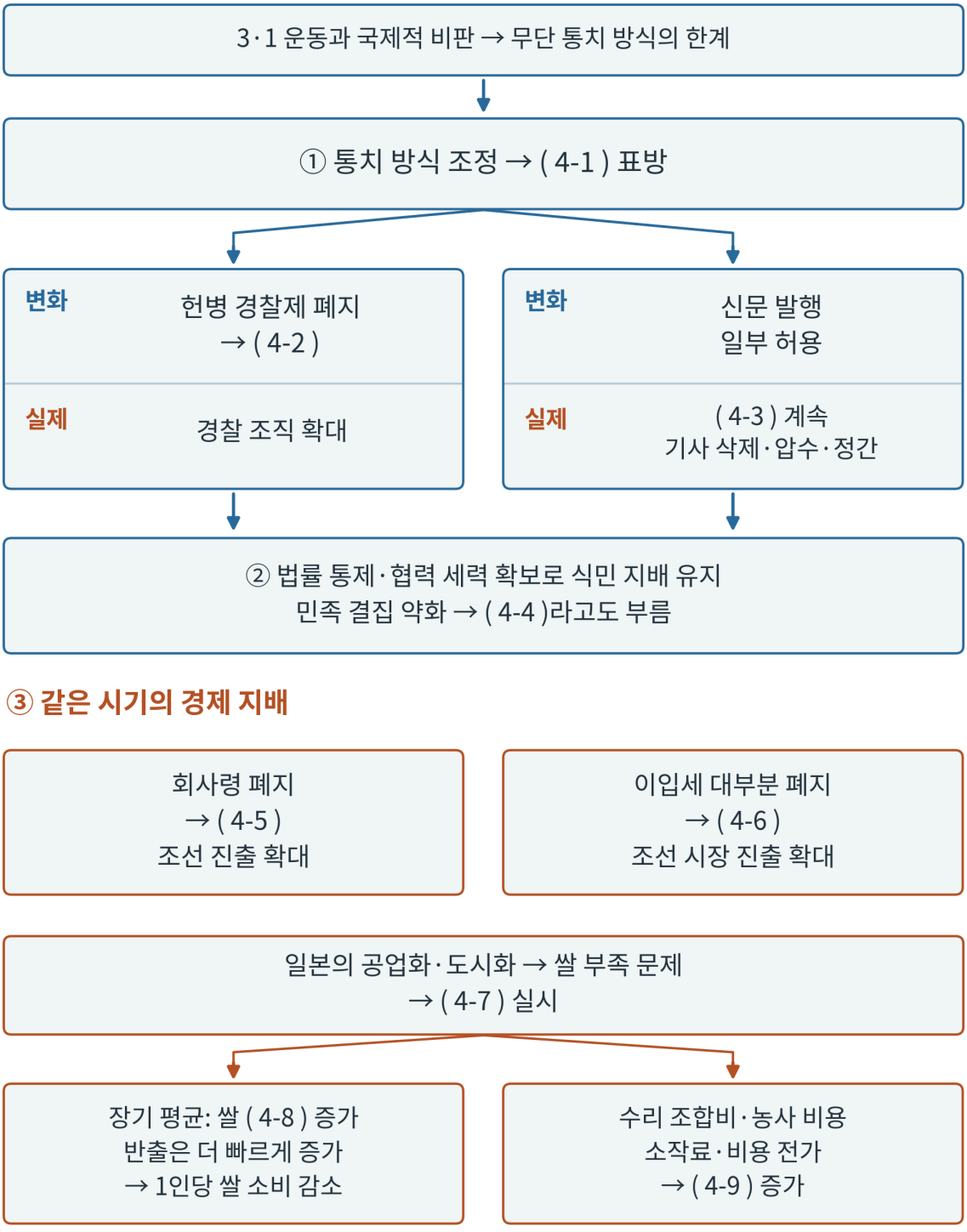
☐ **3-3** 밑줄 고치기

“산미 증식 계획으로 생산이 늘어 지주·자작농·소작농에게 이익과 비용이 똑같이 나뉘었다.”

→ 밑줄을 바꾸면? (모두 비용만 돌아갔다 / 계층별로 다르게 나뉘었다)

한 장 흐름도 완성

번호의 답을 아래 표에 쓰세요.



통치 변화와 경제 지배를 연결하는 빈칸 흐름도.

볼 것 위쪽 통치 변화와 아래쪽 경제 정책은 같은 시기에 진행된 서로 다른 흐름입니다. 번호의 답을 아래 표에 쓰세요.

출처: 대치동 재우쌤 제작

보기 검열 · 일본 자본 · 문화 통치 · 농민 부담 · 보통 경찰제 · 산미 증식 계획 · 민족 분열 통치 · 생산량 · 일본 상품

문항 ID	흐름도의 빈칸
☐ **4-1 빈칸**	통치 방식의 이름: ( )
☐ **4-2 빈칸**	헌병 경찰제 대신: ( )
☐ **4-3 빈칸**	신문 발행 일부 허용과 함께 계속된 통제: ( )
☐ **4-4 빈칸**	협력 세력을 길러 결집을 약화하려 한 통치의 다른 이름: ( )
☐ **4-5 빈칸**	회사령 폐지로 조선 진출이 쉬워진 것: ( )
☐ **4-6 빈칸**	이입세 대부분 폐지로 조선 시장 진출이 쉬워진 것: ( )
☐ **4-7 빈칸**	일본의 쌀 문제를 조선의 증산으로 해결하려 한 정책: ( )
☐ **4-8 빈칸**	장기 평균에서 반출보다 느리게 늘어난 조선의 쌀 ( )
☐ **4-9 빈칸**	수리 조합비·농사 비용·소작료 등으로 커진 것: ( )

↩ PART A·B·C의 비교표와 Q17·Q18

용어 찾아보기

가나다순 · 처음 풀이한 곳

용어	쉬운 뜻	처음 풀이
1인당 쌀 소비량	한 사람이 한 해에 소비한 쌀의 평균 양	Q17
3·1 운동	1919년 국내외에서 일어난 대규모 독립 만세 운동	Q1
간척	바다나 갯벌 등에 둑을 쌓아 이용할 땅을 만드는 것	Q16
개간	농사짓지 않던 땅을 농경지로 만드는 것	Q16
『개벽』	1920년 창간되어 사회 문제와 민족의 현실을 다룬 잡지	Q5
검열	권력이 글이나 그림의 내용을 검사하여 발표를 제한하는 것	Q5
결사	공통 목적을 위해 만든 단체	Q11
결집	사람이나 힘이 하나로 모임	Q12
경성	일제 강점기 서울의 이름	Q9
경성 제국 대학	일제가 1924년 경성에 세운 대학 / 조선인의 교육 평등을 뜻하지는 않음	Q9
경찰 관서	경찰서·주재소 등 경찰 업무를 맡는 기관	Q7
고등 경찰	사상과 정치 활동을 감시·단속하던 경찰	Q7
공업화	전체 산업에서 공장·기계를 이용한 공업 생산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	Q15
관제	관청의 조직과 관리 임명에 관한 규칙	Q3
국체	당시 일본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가리키던 말	Q11
군경	군대와 경찰	Q1
기사 삭제	검열로 문제 삼은 내용을 지면에서 지우게 하는 처분	Q8
납세	세금을 냄	Q10
농사 개량	품종·비료·재배 방법을 바꾸어 생산량을 높이려는 것	Q16
단위 면적당	같은 넓이의 땅을 기준으로 계산한	Q16
도 평의회·부·면 협의회	지방 행정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둔 자문 기구	Q6
도시화	인구와 일자리가 도시로 모여 도시 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변화	Q15
만주	한반도 북쪽, 오늘날 중국 동북 지방	Q17
면	군 아래 행정 구역. 농촌이 많았지만 도시 성격의 면도 있었음	Q6

용어	쉬운 뜻	처음 풀이
무관	군인인 관리	Q3
무단 통치	일제가 군대·헌병 경찰의 강압을 앞세운 1910년대 통치 방식	Q1
문관	군인이 아닌 관리	Q3
문화 통치	제도 일부를 바꾸고 회유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이어 가려 한 통치 방식	Q1
민립 대학 설립 운동	조선인이 민간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 한 운동	Q9
민족 분열 통치	협력 세력을 길러 민족의 결집을 약화하려 한 통치 방식 / 자세한 목적은 Q12	Q2
민족의식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생각과 자부심	Q8
반출	밖으로 실어 냄	앞부분
보통 경찰제	헌병 대신 일반 경찰 조직이 치안을 담당하도록 바꾼 제도	Q4
보통선거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 모두에게 재산·성별 차별 없이 선거권을 주는 것	Q10
보통학교	당시 조선인 어린이가 다닌 초등 교육 기관	Q6
부	당시 도시 지역에 둔 행정 구역(오늘날의 시와 비슷함)	Q6
부채	빚	Q18
사유 재산 제도	개인이나 민간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Q11
사이토 마코토	1919년 새 총독으로 부임해 문화 통치를 내세운 일본 해군 대장 출신 인물	Q1
사회주의	공장·토지 같은 생산 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가져 불평등을 없애자는 사상	Q11
산미 증식 계획	일제가 조선의 쌀 생산을 늘려 일본에 공급하려고 1920년부터 추진한 농업 정책	Q15
석	곡식의 양을 재던 단위. 쌀 1석은 약 144kg	Q17
소작농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고 소작료를 내는 농민	Q18
소작료	땅을 빌려 농사짓는 대가로 지주에게 내는 몫이나 돈	Q18
수리 시설	물의 공급·조절을 위한 저수지·수로·둑 등의 시설	Q16
수리 조합	수리 시설을 설치·관리하려고 토지 소유자 등을 중심으로 만든 조직	Q16
수업 연한	학교를 다니도록 정한 햇수	Q6
신고제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식	Q13

용어	쉬운 뜻	처음 풀이
쌀 단작화	농업 생산이 쌀 중심으로 치우치는 현상	Q17
쌀 생산량	조선에서 거두어들인 쌀의 전체 양	Q17
쌀 소동	1918년 일본에서 높은 쌀값에 항의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소란	Q15
압수	발행한 신문·잡지 등을 강제로 거두어 가는 처분	Q8
우량 품종	수확량·품질 등이 좋도록 고르거나 개량한 작물 종류	Q16
유력자	지역에서 재산·영향력이 큰 사람	Q12
유화 정책	불만을 누그러뜨리려고 일부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부드러운 방식을 내세우는 정책	Q1
유화적	부드럽게 달래는 방식의	Q1
이익의 분배	경제 활동에서 생긴 이익이 사람이나 집단별로 나뉘는 것	Q19
이입세(관세)	이 단원에서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붙던 세금. 교과서와 시험에서는 흔히 '관세'라고 씀	Q14
일변도	한 가지 방향이나 방식에만 치우침	Q1
일본 반출량	조선에서 일본으로 실어 보낸 쌀의 전체 양	Q17
임용	관리로 뽑아 씀	Q3
자문	결정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함.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는 뜻은 아님	Q6
자본	사업에 투입하는 돈·설비 등	Q13
자본가	사업에 쓰는 자본을 소유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Q12
자본력	사업에 필요한 돈·설비 등을 마련하고 운용하는 힘	Q13
자작농	자기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	Q18
잡곡	쌀 이외의 곡식(조·수수·콩 등)	Q17
전가	남에게 떠넘김	Q18
정간	일정 기간 신문이나 잡지의 발행을 멈추게 하는 처분	Q8
제2차 조선 교육령	1922년 일제가 보통학교 수업 연한 등 교육 제도를 고친 법령	Q6
조선 총독	일본이 임명해 식민지 조선을 다스리게 한 최고 책임자	Q1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 아래에서 식민지 조선을 다스린 일제의 최고 통치 기관	Q5
조선 태형령	조선인에게 매를 때리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일제가 만든 법령	Q4
『조선일보』·『동아일보』	1920년 창간된 조선인 발행 신문	Q5
주권	나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최고 권한	Q2

용어	쉬운 뜻	처음 풀이
주재소	경찰관이 지역에 머물며 업무를 보는 작은 관서	Q7
『중외일보』	1926년 창간된 조선인 발행 신문 / 아래 자료는 1927년 3월 1일자	Q8
즉결 처분	재판 없이 헌병 경찰이 바로 벌을 주는 것	Q2
증산	생산량을 늘림	Q15
지식인	학문·교육·언론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	Q12
지주	토지를 소유하고 다른 농민에게 빌려 주어 대가를 받는 사람	Q12
지주제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는 농업 구조	Q17
취학	학교에 들어가 다니는 것	Q6
치안 유지법	국체 변경·사유 재산 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와 활동을 단속한 법	Q11
태화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이 독립 선언식을 한 곳	Q8
토지 개량	논의 물 공급이나 토지 상태를 고쳐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것	Q16
포섭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임	Q12
표방	겉으로 내세움	앞부분
학제	학교의 종류·단계·교육 연한을 정한 제도	Q6
허가제	조건을 갖추어도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는 방식	Q13
헌병 경찰제	군인인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맡았던 제도	Q4
호황	물건이 잘 팔려 경제가 활발한 상태	Q13
회사령	1910년 일제가 조선에서 회사 설립에 총독부 허가를 받도록 한 법령	Q13
회유	상대를 달래거나 이익을 제공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Q2

정답 및 해설

틀린 문제만 해설을 읽고 본문 문제를 다시 풉니다.

빈칸 정답은 뜻이 같으면 교과서 표기로 띄어쓰기만 달라진 기존 답도 인정합니다.

PART A 정답 및 해설

Q1-1 **X**

3·1 운동 뒤 일제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겪으며 기존 무단 통치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식민 지배를 계속하기 위해 통치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Q1-2 ①

기존 방식으로 지배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통치 방법을 조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Q2-1 **O**

문화 통치는 식민 지배 자체를 끝낸 정책이 아니라 강압 일변도의 모습을 일부 바꾸고 회유·포섭을 함께 사용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Q2-2 **포기(폐지·종료) / 방법(방식)**

식민 지배는 계속되었고 그 방법만 조정되었으므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가 문장과 뜻에 맞습니다.

Q3-1 **X**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은 바뀌었지만 실제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Q3-2 ②

규정의 가능성과 실제 임명 결과를 구별한 설명입니다. 총독은 일본이 임명했으며 조선인이 선거로 뽑지 않았습니다.

Q4-1 **1910년대—헌병 경찰제 / 3·1 운동 이후—보통 경찰제**

군인인 헌병의 일반 경찰 업무를 보통 경찰 조직으로 옮긴 제도 전환입니다.

Q4-2 **O**

3·1 운동 뒤 헌병 경찰제를 폐지하고 보통 경찰제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제도 이름의 변화가 경찰력 축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5-1 **X**

조선인 신문·잡지가 일부 허용되었지만 총독부의 검열과 기사 삭제·압수·정간 등은 계속되었습니다.

Q5-2 ①

발행 허용으로 표현 공간이 일부 생겼지만 검열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신문이 폐지되어 조선인 신문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Q6-1 **X**

도 평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거로 의원을 뽑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지방 제도에 참여 통로가 일부 생겼다는 사실과 민주적 주민 대표 의회가 만들어졌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Q6-2 ②

권리의 실질은 기관 이름보다 실제 권한과 참여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령·협의회라는 이름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PART A 마지막 회상

A회상-A1 **무단 / 유화**

대규모 저항과 비판으로 강압 위주의 통치에 한계가 드러나자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A회상-A2 **가능(허용) / 보통**

총독 임용 규정을 바꾸고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전환한 겉 변화를 묻습니다.

A회상-A3 **조선 / 동아**

1920년 두 신문의 창간은 조선인 언론의 발행 공간이 일부 넓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두 신문의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A회상-A4 **계속되었다 /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

학교 수가 늘어도 교육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방 기구도 주민이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PART B 정답 및 해설

Q7-1 **O**

헌병 경찰제의 외형은 사라졌지만 보통 경찰제 아래 경찰 관서와 인원이 확대되어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계속되었습니다.

Q7-2 ②

관서·인원과 감시 기능을 보아야 통제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이라는 이름은 제도 유형을 뜻할 뿐 통제가 약하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Q8-1 **O**

‘발행 허용’과 ‘검열’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일부 표현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과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Q8-2 ②

표현 공간이 일부 확대되어도 삭제·압수·정간을 할 수 있는 식민 권력의 통제가 남았습니다. 완전한 언론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Q9-1 **O**

제2차 조선 교육령의 학제 조정과 1920년대 공립 보통학교·취학자 증가가 있었지만, 교육 체계와 교육 기회의 차별·제한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Q9-2 ①

학교 수뿐 아니라 누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교육령이라는 법령 이름만으로 평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Q10-1 **X**

부와 일부 면에서 실시된 협의회 선거도 일정한 세금 납부 요건을 갖춘 소수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인 조선인이 참여한 보통선거가 아니었습니다.

Q10-2 ①

선거 자격과 정책 결정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 자치와 다릅니다. ‘회의’라는 이름이 국회와 같은 권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Q11-1 **O**

치안 유지법은 일본의 국체를 바꾸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의 결사·활동을 단속하도록 만든 법이었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Q11-2 **치안**

국체 변경·사유 재산 제도 부인 목적의 결사·활동을 단속한 법이 치안 유지법이며, 독립운동 탄압에도 이용되었습니다.

Q12-1 **X**

특정 사회 계층 전체를 친일 협력자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일제는 여러 계층의 일부 유력자를 포섭해 협력 세력을 넓히려 했습니다.

Q12-2 ②

일부 유력자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해 식민 통치에 협력하게 하고 결집을 약화하려 했습니다. 조선인의 정치 주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PART B 마지막 회상

B회상-B1 **인원**
헌병 경찰제의 폐지 뒤에도 경찰 조직을 확대했으므로 관서와 사람 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B회상-B2 **삭제**
내용을 지우는 삭제, 발행물을 거두는 압수, 발행을 멈추는 정간이 함께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B회상-B3 **교육—㉠·㉢ / 지방 참여—㉡·㉣**
교육 평등은 실제 교육 기회로, 지방 자치는 기구의 권한과 참여 범위로 판단합니다. 각 칸 안의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B회상-B4 **ⓐ 치안 유지법 / ⓑ 포섭 / ⓒ 결집 / ⓓ 식민 지배**
법률 단속과 협력자 확보는 서로 다른 수단이지만 식민 지배 유지라는 목적을 공유했습니다. 보통선거를 보장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PART C 정답 및 해설

Q13-1 **X**
회사령 폐지로 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이 더 쉬워지면서 일본 자본의 영향도 확대되었습니다.

Q13-2 ②
허가 중심의 설립 규제가 완화되자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의 진출이 쉬워졌습니다. 일본 기업의 진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아닙니다.

Q14-1 **O**
상품에 붙는 세금이 줄면 조선 시장으로 들어오는 비용 장벽이 낮아져 일본 상품의 진출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Q14-2 ①
이입세가 줄면 일본 상품의 조선 진입 비용도 낮아집니다. 일본 상품을 막는 조치와는 반대 방향입니다.

Q15-1 **X**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공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쌀 부족 문제를 식민지 조선의 증산과 공급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Q15-2 **(나) → (다) → (가)**
일본의 산업·도시 인구 증가가 쌀 수요를 키웠고, 일제는 부족 문제를 조선의 증산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Q16-1 **X**

산미 증식 계획은 토지 개량과 농사 개량을 두 축으로 수리 시설·개간·간척, 우량 품종·비료·재배 방법 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Q16-2 **토지 개량—수리 시설·개간·간척 / 농사 개량—품종·비료·재배 방법**

토지 개량은 땅과 물 공급 조건을, 농사 개량은 작물과 재배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둡니다. 언론 검열·경찰 확대는 증산 방법이 아닙니다.

Q17-1 **O**

첫 산미 증식 계획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장기 평균으로 보면 실제 쌀 생산은 증가했고, 일본 반출은 생산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량만 보고 조선인의 소비 증가를 자동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Q17-2 ②

생산이 늘었더라도 일본으로 나간 쌀이 더 빠르게 늘면 조선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쌀이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18-1 **X**

정책의 결과는 계층별로 달랐습니다. 중소 지주·자작농은 수리 조합비와 농사 비용·부채 부담을 질 수 있었고, 소작농은 높은 소작료와 지주가 넘긴 일부 비용 부담을 겪었습니다. 반면 일부 대지주는 이익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Q18-2 ①

생산량이 늘어도 비용·소작료 부담과 이익의 분배가 불균등하면 일부 농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도 비용은 듭니다.

Q19-1 **X**

생산·회사 수 증가라는 변화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정책의 목적과 이익 분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의 필요, 일본 자본과 상품의 진출, 쌀 반출, 농민 부담을 함께 봐야 합니다.

Q19-2 ①·②·④

자본·상품·쌀의 이동 방향과 계층별 분배를 함께 보아야 경제 변화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 수 증가가 모든 농민에게 같은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PART C 마지막 회상

C회상-C1 **회사 / 자본**

회사령 폐지로 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자 자본력이 큰 일본 기업의 조선 진출이 쉬워졌습니다.

C회상-C2 **이입세 또는 관세 — 둘 중 하나만 써도 정답**

일본 상품에 붙던 세금 부담이 줄어 조선 시장에 들어오기 쉬워졌습니다. 빈칸 뒤에 ‘세’가 없으므로 세금 이름 전체를 씁니다.

C회상-C3 **산미**
일본의 식량 문제를 조선에서 쌀을 늘려 공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정책이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C회상-C4 **반드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 어려워질 수 있다**
반출 증가로 조선인의 소비가 함께 늘지 않았고, 생산 비용·소작료 부담은 농민 생활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농민의 결과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C회상-C5 **판단할 수 없다**
회사 수·생산량은 변화의 규모만 보여 줍니다. 일본 경제의 필요와 반출·비용·이익의 분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전체 마지막 정리 정답 및 해설

1-1 **문화**
3·1 운동 뒤 일부 제도 변화를 내세운 통치 방식의 이름이며, 식민 지배의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1-2 **확대(강화) / 검열(통제)**
경찰 조직 확대와 언론 검열은 유화적인 이름 아래 식민 통제가 계속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1-3 **산미**
일본 자본·상품의 진출 확대와 함께, 일본의 식량 문제를 조선의 증산으로 해결하려 한 경제 정책입니다.

2-1 **가능 / 임명되지 않았다**
관제 개정은 문관 임명의 길을 열었을 뿐 실제 문관 총독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2-2 **①·②·④**
경찰 확대·언론 검열·법률 단속은 통제의 지속을 보여 줍니다. 보통 경찰제로 바뀌어도 경찰 통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3 **교육—㉠ / 지방 참여—㉡·㉢**
교육에서는 기회의 차별이, 지방 기구에서는 자문 권한과 제한된 선거 참여가 한계였습니다. 지방 참여 칸의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3-1 **늘었다**
헌병 경찰제의 외형을 없애면서도 경찰 관서와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경찰 조직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3-2 **낮아졌다**
회사 설립 규제가 완화되어 일본 기업의 진출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조선 경제가 일본 자본에서 독립한 것은 아닙니다.

3-3 **계층별로 다르게 나뉘었다**
일부 대지주는 이익을 얻었지만 중소 지주·자작농·소작농은 서로 다른 비용 부담을 겪었습니다. 모두에게 비용만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4-1 **문화 통치**
3·1 운동 뒤 일제가 내세운 통치 방식의 이름입니다.

4-2 **보통 경찰제**
헌병의 일반 경찰 업무를 일반 경찰 조직에 옮겼습니다.

4-3 **검열**
발행을 허용해도 글의 내용은 계속 통제했습니다.

4-4 **민족 분열 통치**
협력 세력을 길러 민족의 결집을 약화하려 했습니다.

4-5 **일본 자본**
회사 설립 규제 완화는 자본을 가진 일본 기업의 진출을 쉽게 했습니다.

4-6 **일본 상품**
상품에 붙던 세금이 줄어 조선 시장 진입이 쉬워졌습니다.

4-7 **산미 증식 계획**
일본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의 쌀 생산을 늘리려 한 정책입니다.

4-8 **생산량**
장기 평균에서 생산도 늘었지만 반출은 그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4-9 **농민 부담**
수리 조합비·농사 비용·소작료 부담은 농민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었습니다.